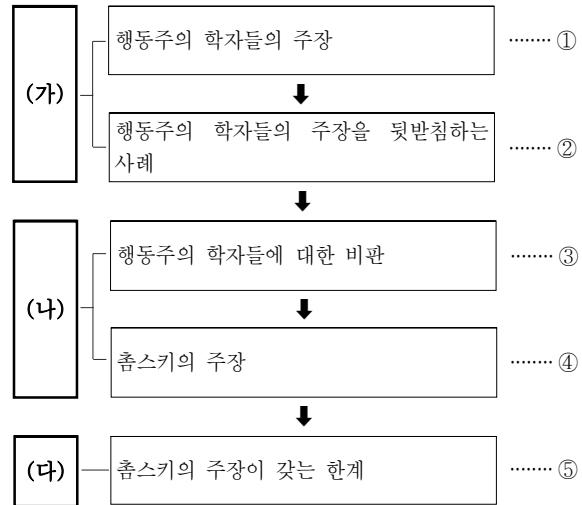


26. 다음은 위 글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0년 3월 고1 26~27번

[26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이들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해 ① 행동주의 학자들은 아이들이 다른 행동을 배울 때와 마찬 가지로 지속적인 모방과 학습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의 언어 습득은 ‘자극-반응-강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를 보고 엄마가 ‘빠이빠이’라고 말하면(자극), 아이는 엄마의 말을 모방하여 ‘빠이빠이’라고 말하고(반응), 이에 대해 부모는 칭찬이나 물적 보상(강화) 등으로 아이가 그 행동을 다시 하도록 격려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말을 배워간다. 즉 행동주의 학자들은 후천적인 경험이나 학습을 언어 습득의 요인으로 본다.

(나) 그러나 이러한 행동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후천적인 요인으로만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언어학자 ② 촘스키는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문장을 끊임 없이 생성해 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행동주의 학자들을 비판한다. 그는 아이들이 의식적인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이유가 태어나면서부터 두뇌 속에 ‘언어습득장치(LAD)’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언어를 접하게 되면 이 장치가 작동하여 유한한 문법 규칙으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언어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필요한 영양과 조건이 주어지면 팔다리가 성장하다가 일정 시기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촘스키는 언어 능력 또한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성장해 가다가 이른바 ‘한계 시기’, 즉 사춘기에 접어드는 13세 무렵에 이르면 성장을 멈춘다고 보았다.

(다) 이러한 촘스키의 주장은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언어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행동주의 학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복잡한 언어 습득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2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생후 18개월부터 약 14세 때까지 방에 감금된 채 고립되어 살아온 ‘지니’라는 소녀가 발견되었다. 지니는 갇혀 지내는 동안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언어를 접할 수 없었다. 발견 당시 지니는 ‘엄마’, ‘지니’, ‘미안해’ 등 겨우 20개의 단어만 이해했다. 지니는 발견된 후 집중적인 언어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 ①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는 감금 기간에 모방의 경험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군.
- ②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의 사례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 ③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는 ‘언어습득장치(LAD)’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로군.
- ④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의 사례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이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 ⑤ ㉠,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의 사례는 언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언어 습득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있다. 고려가요 「정석가」 가운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잇가?」라는 표현에서 「연결」을 지향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릇 도식’은 ‘안’, ‘밖’의 구조로 이루어진 도식으로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⑦‘그릇으로서 몸’ 도식은 자기의 몸을 하나의 그릇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한다면 내 몸이 그릇이 되고, 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내용물이 된다. 한편, ⑧‘그릇 속의 몸’ 도식은 자기의 몸을 그릇 속의 내용물로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엄마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용과 균형을 긍정적인 것으로, 지나침과 불균형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균형도식’과,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등의 방향과 관련된 ‘방향도식’이 있다. ‘위, 앞, 오른쪽’은 긍정적이며, ‘아래, 뒤, 왼쪽’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의미의 문제를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독립시켜 정의하는 입장과는 달리 의미를 신체 경험과 관련지어 체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영상도식인 것이다. 그러나 영상도식과 같은 인지모형은 문화 의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계통을 달리 하는 언어들 간에 개념적 의미가 같은 단어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포적 의미까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41. 다음은 위 글의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이다. 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 목적 : 언어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경험과 관련지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 내용 선정 : 언어에 담긴 인지 구조를 잘 보여주는 이론을 선정한다. ①

○ 자료 수집 : 이론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수집한다. ②

○ 내용 전개

가. 관련 항목을 나열하여 체계성을 갖춘다. ③

나.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④

다. 학술용어를 사용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살린다. ⑤

42. ⑦과 ⑧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a~d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a. 나는 감기에 걸려 주사를 맞았다.
- b.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 c. 나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 몸담고 있다.
- d. 나는 우리 학교 재즈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다.

㉠

- ① a, b
- ② a, c
- ③ b, c
- ④ b, d
- ⑤ c, d

㉡

- c, d
- b, d
- a, d
- a, c
- a, b

43. 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지나침을 경계하는 말이므로, 균형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② 백년가약(百年佳約)은 인연의 맷어짐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연결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③ 상명하복(上命下服)은 위와 아래라는 방향을 통해 성립되는 말이므로, 방향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본말전도(本末顛倒)는 중심과 주변의 뒤바뀜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중심-주변 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⑤ 침소봉대(針小棒大)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지니는 말이므로, 부분-전체 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07-6평 43~46번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사전’ 하면 흔히 ‘ㄱ, ㄴ, ㄷ’ 순으로 배열된 국어사전을 떠올리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도 사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머릿속 사전’이라 부른다. 그런데 책으로 된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전은 한글 자모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이 표준이다. 머릿속 사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말실수를 할 때 한글 자모 순서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 단어를 얼른 생각해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전에서 그 다음에 배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진선’이 선택되는 식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단어 연상 실험을 들 수 있다. 이 실험은 자극어를 준 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 보게 하거나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극어로 ‘바늘’을 제시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어는 ‘실, 편, 날카롭다, 꿰매다’ 등이다. 이는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어가 머릿속에서 자극어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한다. 우리는 ‘하늘’이라든가 ‘공부’와 같이 ‘바늘’과 상관이 없는 반응어를 기대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상이라는 것이 비록 언어의 규칙 기반적인 다른 측면들처럼 명쾌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주로 ④ 등위적, 배열적, 상위적,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위적 연결은 ‘나비 - 나방’처럼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과 ‘원쪽 - 오른쪽’처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배열적 연결은 ‘소금 - 물’처럼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어들의 연결을, 상위적 연결은 ‘나비 - 곤충’처럼 하위어와 상위어의 연결을, 동의적 연결은 ‘배고프다 - 굶주리다’처럼 뜻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이들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것들의 연결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덧붙여 실어증 환자들에 관한 실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부엌 용구의 이름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과일 이름은 모두 잊어버렸고, 어떤 환자는 의복 이름은 댈 수 있었지만 옷감의 종류는 말하지 못했다. 이는 ‘부엌 용구, 과일 이름, 의복 이름, 옷감 이름’ 등이 모두 독립된 장(場)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을 합축한다.

위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머릿속 사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루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단어들 사이의 연결 정

도는 그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셋째,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각 장들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장이 다른 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들은 거미줄처럼 얹혀 있다.
- ② 단어 연상 실험으로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자극어와 반응어는 머릿속에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 ④ 실어증 환자들의 사례는 단어들이 장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반응어는 깊은 사고를 통해 나오므로 머릿속 사전의 연결 방식을 잘 반영한다.

44. [A]의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어-, 춥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 ② “그는 상당한 언어 곤경, 아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 ③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떠올라) “꼼 사합니다.”
- ④ 감 : (하늘의 별을 보려고) “거기 현미경 좀 가져와 봐.”
 율 : “당원경 말하는 거야?”
- ⑤ 감 : “그거 있잖아, 그……. 생각이 날 듯한데. 징어, 쟁어, 정어, 정우 그게 뭐더라.”
 율 :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45. <보기>의 예들을 ④의 구분에 따라 알맞게 나열한 것은?

[1점]

<보기>		
ㄱ. 고무 - 줄	ㄴ. 잠자리 - 채	ㄷ. 두껍다 - 얇다
ㄹ. 남자 - 사람	ㅁ. 북쪽 - 남쪽	

	등위적 연결	배열적 연결	상위적 연결
①	ㄱ	ㄴ	ㄹ
②	ㄷ	ㄱ	ㄹ
③	ㄷ	ㄱ	ㅁ
④	ㅁ	ㄷ	ㄹ
⑤	ㅁ	ㄹ	ㄴ

4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국어사전을 머릿속 사전의 조직 원리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보기>—————

오릉(五陵) 『고적』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 있는 다섯 능묘. 사적 제172호.
오리¹ 『동물』 오랫파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오리²(汚吏) 청렴하지 못한 벼슬아치.
오리³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오리-가리 여러 가닥의 오리나 갈래로 갈라지거나 째진 모양. ㊂ 가리가리.

- ① ‘오릉’, ‘오리’, ‘오리가리’처럼 한글 자모 순서로 배열하지 말고, 의미 및 주제를 고려해서 재배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 ② ‘오리¹’은 ‘오리²’와 분리해서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묶어 제시하면 좋겠어.
- ③ ‘오리¹’은 ‘오리발’, ‘오리걸음’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는데, 이 단어들의 관련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 ④ ‘오리가리’도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어. 이 단어도 ‘오리³’과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 ⑤ ‘가리가리’처럼 보통 사전에는 ‘유의어’가 제시되는데, 그러한 방식은 그대로 따라도 좋을 것 같아. 필요하면 반의어도 제시하면 좋겠어.

◆ 08년 3월 고3 36~39번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Q가 70이 채 안 되는 13살 소년 A는 혼자서 웃의 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손톱도 깎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 어, 그리스 어, 터키 어 등 20여 개의 외국 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이를 외국어로 쓴 글을 자국어인 영어로 손쉽게 번역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다른 인지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촤스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두 가지 유형의 실어증 환자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좌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언어 능력이 여타의 인지 능력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실어증 환자 중에는 억양이나 발음이 정상적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종종 의미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특이하게도 (㉠)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환자들은 1874년 칼 베르니케의 논문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좌뇌의 뒷부분(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일상적인 간단한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이란 말 대신에 ‘다시는 것’, 또 ‘고’ 대신에 ‘냄새를 맡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A] “그것이 뭔지 알지만 말할 수가 없군요. 그건 물속에 있고, 그걸 잡는 건 재미있죠. 휴가에 말이죠. 그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가깝지요. 먹기도 좋구요. 그건 게지요. 아니 아니 게에 가깝기는 한데, 물고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

실어증 환자 중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 경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한다. 또한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1861년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좌뇌의 앞부분(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뇌의 어느 한쪽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세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 어휘 형성, 문장 생성 등 언어의 여러 측면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문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문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동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동사를 말하지 못하게 된다.

36. 위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도 유창한 언어 능력을 지닐 수 있다.
- ② 실어증 환자를 통해 인간의 좌뇌가 언어 능력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 ③ 실어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 ④ 인간의 뇌에서 어휘 형성과 문장 생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각각 다르다.
- 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 세포가 손상된 실어증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

37.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그림에 등장하는 실어증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브로카 실어증 환자로군.
- ②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 ③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 ④ 문맥에 맞지도 않는 어휘를 쓰는 것을 보니 좌뇌의 앞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 ⑤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니 좌뇌의 뒷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38. [A]와 관련지어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이 정확하지 않다
- ② 간단한 핵심 단어만 사용한다
- ③ 명사를 잘 기억해 내지 못한다
- ④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빠뜨린다
- ⑤ 용언의 어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39. <보기>를 참조할 때, ㉡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 단어는?

<보기>

○ 파생어의 형성 방법

어근 + 접미사 [예] ㉡ 말하다 : 말(어근) + -하다(접미사)
접두사 + 어근 [예] 치솟다 : 치-(접두사) + 솟다(어근)

- ① 꽂답다
- ② 힘들다
- ③ 헛들다
- ④ 짓밟다
- ⑤ 검붉다

◆ 05 MDEET(예비) 언어추론 15~17번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말에 브로카는 왼쪽 뇌의 전두엽(브로카 영역) 손상으로 인해 상대방의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이해하지만, 본인이고 싶은 말은 제대로 산출해 내지 못하는 실어증 환자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브로카의 표현성 실어증 사례는 여러 종류의 언어 정보 처리 과정이 뇌의 다른 영역에서 각각 일어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후 베르니케에 의해 왼쪽 뇌의 측두엽(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문장을 유창하게 산출하는 이해성 실어증 환자 사례가 보고되었다.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을 입은 실어증 환자는 단어를 구성하는 말소리는 변별할 수 있지만, 들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베르니케는 브로카가 보고한 실어증 사례와 자신이 발견한 실어증 사례를 이용하여, 언어 산출 영역과 이해 영역이 신경해부학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두 영역은 '궁형속(弓形束)'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표현성 실어증이 되고,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이해성 실어증이 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 모형은 궁형속이 단절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말하지 못하는 ⑦ 전도성 실어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르니케 모형은 실어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한 최초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베르니케 모형에서는 언어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그 영역들은 특정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해부학적 국재화(局在化) 가설에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재화 가설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실어증 환자가 일부 언어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뇌 손상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언어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종류의 언어 정보 처리든 관계없이 뇌의 모든 부분이 협응하여 관련된 언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전체주의 가설이라 불린다. 전체주의 가설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의 언어 장애가 뇌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베르니케 모형이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 언어 기능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주의 가설도 문제점을 갖는다. 실어증 환자를 언어 장애의 정도로 설명한다고 해도, 표현성 실어증과 이해성 실어증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언어 장애가 기능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신경해부학적 국재화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슈빈트는, 인간의 복잡한 인지 과정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정보 처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간 정보 처리론을 도입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베르니케 모형을 보완하여, 실어증 장애를 뇌 영역의 신경해부학적 손상이 아니라 인간 정보 처리 과정의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을 제안하였다.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에서는 특정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단어의 이해와 산출 기능은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신경해부학적으로는 뇌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기능적 단원성(functional modularity) 가설이라고 부른다.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은 기능상으로 상이한 형태의 언어 장애를 보이지만, 신경해부학적으로는 국재화되어 있지 않은 실어증 사례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브로카는 국재화 가설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 ② 베르니케는 브로카의 견해를 발전시켰다.
- ③ 전체주의 가설은 베르니케의 가설을 부정하였다.
- ④ 게슈빈트는 전체주의 가설을 보완하였다.
- ⑤ 게슈빈트는 인간 정보 처리론을 수용하였다.

16. 베르니케 모형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 ① 궁형속이 손상된 환자의 언어 장애 사례
- ② 뇌의 손상 영역에 따라 실어증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
- ③ 문장 이해에 장애가 있고, 의미 없는 문장을 유창하게 산출하는 사례
- ④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순수하게 표현성 실어증의 증상만 나타나는 사례
- ⑤ 단어의 이해에 장애가 있는 환자와 산출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뇌 손상 영역이 동일한 사례

17. ⑦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대방의 말소리 정보를 자신의 말소리 산출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② 상대방의 말소리 정보를 자신의 단어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③ 상대방의 문장 정보를 자신의 의미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자신의 의미 산출 정보를 말소리 산출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⑤ 자신의 문법 정보를 의미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12년 4월 고3 48~50번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음성언어가 음성으로 표현되고 청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임에 비해 ㉡ 수화는 손 운동 등으로 표현되고 시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이다. 또한 수화는 음성언어에 비해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발달되지 않아서 주로 어순이나 수화의 맥락 등에 따라 그 문장성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예쁘다} {꽃}’*의 순서로 수화하면 {예쁘다}가 어미의 활용 없이 ‘꽃’을 꾸미는 관행어가 되지만, ‘{꽃} {예쁘다}’의 순서에서는 {예쁘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다.

수화는 손을 사용하는 수지 신호와 손 이외의 얼굴이나 눈썹의 움직임, 입 모양 등의 비수지 신호로 의미를 전달한다.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일반적인 음성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데에 비해 비수지 신호는 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

- (1)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리며 얼굴을 뒤로 악간 젖힘
수지 신호: {나} {화나다}*
의 미: 나는 굉장히 화났다.

(1)에서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에 동반되어 수지 신호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보다 수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음성언어의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 ㄱ.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벌리며 고개를 앞으로 내밉
수지 신호: {이해} {되다} {-ㅂ니까}
의 미: 이해가 됩니까?

ㄴ.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벌리며 고개를 앞으로 내밉
수지 신호: {이해}
의 미: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서술어의 어간에 결합되어 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2)-ㄱ’에서처럼 수화에서는 ‘{-ㅂ니까}’라는 수지 신호와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를 함께 사용하여 의문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어 ‘(2)-ㄴ’에서처럼 {-ㅂ니까}라는 수지 신호 없이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문형을 표현한다.

- (3)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립
수지 신호: {빨리빨리} {결정}
의 미: 빨리빨리 결정해라.

수화의 명령문은 (3)에서처럼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립’ 등과 같은 비수지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3)에서처럼 문장 끝에 있는 수지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데, 특히 강하게 명령할 때에는 비수지 신호를 문장 처음에 있는 수지 신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한다.

이렇듯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시각적 신호와 의미의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체계이다.

* { }: 수지 신호임을 알려주는 표시.

* : 수지 신호 중 밑줄이 표시된 부분은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지속되는 부분임을 알려주는 것임.

48.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다.
- ② 비수지 신호는 음성언어 상황의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③ 수지 신호는 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역할을 수행 한다.
- ④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 ⑤ 명령문에서 비수지 신호가 처음부터 강하게 사용되면서 지속될 경우에는 명령의 의도가 강조된다.

49. ㉠과 ㉡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감각 기관을 통해 이해되는 체계이다.
- 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 ㄷ. 어순에 따라 단어의 문장성분이 결정된다.
- ㄹ. 표정이나 몸짓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0. <보기>는 ‘아이는 방에서 놉니까?’를 수화로 표현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수지 신호				
수지 신호	{아이}	{방}	{놀다}	{-ㅂ니까}

ⓐ ⓑ ⓒ ⓓ ⓔ ⓕ

- ① Ⓩ는 국어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 ② ⓑ 앞에 {예쁘다}를 표현하면 ‘예쁜 아이’라는 의미가 된다.
- ③ {에서} 없이 ⓓ만으로도 ‘방에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④ <보기>를 명령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려면 ⓔ를 바꾸면 된다.
- ⑤ ⓕ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와 ⓔ를 함께 사용하면 ‘놉니까?’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11년 3월 고2 45~47번

[45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미점자위원회는 점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점자는 하나의 점칸(braille cell) 안에 가로 2개, 세로 3개로 배열된 6개의 불록한 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점형을 사용하여 촉각으로 읽고 쓰는 체계이다.” 이 6개의 점은 위치에 따라 왼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4점, 5점, 6점으로 정의하여 부르고 있다.

(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6점식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파리맹학교의 학생으로서 12점 점자를 접하게 된다. 그는 12점 점자가 위아래로 너무 길게 배열되어 있어 빨리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세로를 반으로 줄여 가로 2점, 세로 3점의 6점식 점자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다.

(다) 점자를 쓸 때는 점자판, 점자 타자기,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등을 주로 사용한다. 점자판은 점자 체계가 고안될 때 함께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필기도구이다. 점자판은 점판(wooden board), 점판(slate), 점필(stylus)로 구성되며, 점자는 보통 종이보다 약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다.

(라) 점자는 일반 글자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한 칸에 들어 있는 6개의 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기호 체계이다. 따라서 한글 점자를 이해하려면 첫소리 자음, 모음, 받침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자 기호를 익히고, 그것을 조합해야 점자로 쓰인 한글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라는 낱말을 점자로 표기하면 ‘첫소리 ㅊ, 모음 ㅗ, 받침 ㄱ, 첫소리 ㄱ, 모음 ㅜ’의 5칸이 소요되는 것이다.

(마) 한글 점자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글 점자의 구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 자음자 14개가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첫소리 글자	;;:	;;:	;;:	;;:	;;:	;;:	;;:	(;;)	;;:	;;:	;;:	;;:	;;: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을 점의 명칭을 사용하여 말하면, 첫소리 ㄱ은 4점, ㄴ은 1-4점(일사점이라고 말한다), ㄷ은 2-4점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첫소리 ㅇ은 소릿값 없이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어서 점자에서는 표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46. (라)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점]

한글 표기의 특징은 음운을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은 ‘ㄱ, ㅏ, ㅇ’의 세 음운을 음절 단위로 모아 ‘강’이라고 표기한다. 이에 비해 영어는 ‘river’처럼 음운을 한 줄로 나열하여 풀어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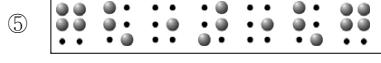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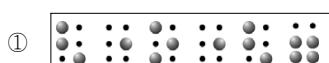
- ① 한글 점자는 음운 단위로 끊어 의미를 파악한다.
 - ② 한글 점자 표기는 한글 표기와 달리 음절을 풀어쓴다.
 - ③ 한글 점자는 한글의 모양을 본떠 고안한 기호 체계이다.
 - ④ 한글 점자 표기는 영어 표기와 달리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 ⑤ 한글 점자·한글·영어 표기는 음절 표기 방법이 동일하다.

47. (마)와 <보기>를 바탕으로 ‘아리랑’을 점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받침 자음: 기본 자음자 14개가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접는다

※ 모을 : 10개의 기본 모을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ㅞ	ㅡ	ㅣ
●●●	●●●●	●●●	●●●●	●●●	●●●●	●●●	●●●●	●●●	●●●●



45. (가) ~ (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점자의 개념
 - ② (나) : 6점식 점자의 발명 계기
 - ③ (다) : 점자판의 구성 원리
 - ④ (라) : 한글 점자 표기의 특징
 - ⑤ (마) : 한글 자음의 첫소리 표기 방식